밤도리 PSAT

2025 5급 PSAT
언·자·상
전 문항 간략 해설

무단 재판매를 엄금합니다.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밤도리 PSAT>
티스토리 블로그 <PSAT 푸는 밤도리>

[언어논리]

[1번] ④
① 스킵
② (2문단) 진사시와 생원시가 별도였으니, 생원시에 합격 못했다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지는 게 아님.
③ (3문단) 조선 들어서는 진사시 폐지됨.
④ (4문단) 마지막에 특이한 내용이라고 봐둔 그대로.

[2번] ③
① 원본 문서 작성 목적을 다룬 기억이 없음
② 스킵
③ (2문단) 원본 문서는 효율적 보존이 어렵고, 등록물 모으는 게 편하다고 했음.

[3번] ⑤
① (1문단) 마라톤 전투 완승 이유로 팔랑크스 숙달 언급
② (2문단) 투구, 흉갑 등 보호 장구 착용
③ (4문단) 2행은 앞 동료의 어깨에 올려 적군을 겨냥했으니 수평일 것이고, 4행은 수직으로 세웠다고 언급됨.
④ (5문단) 호플론에 대한 설명 그대로임.

[4번] ⑤
① ~ ④ 다룬 기억이 없거나 너무 디테일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 스킵
⑤ (3문단) 마지막에 본 구체적 사례 그대로임.

[5번] ⑤
① 면접교섭권에 그런 조건은 없었음. 그냥 비양육친에게 주어지는 것.
② (2문단) 공동양육을 유지할 수는 있음.
③ 부부로서 함께 사는데 왜 이혼 테마로 가…?
④ 미성년 자녀의 인격권 제한은 개소리.

[6번] ⑤
①② (1문단) 빈곤 문화가 세대에 걸쳐 대물림된다고 했음.
③ (2문단) 가족구성도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고 직접 언급됨.
④ (3문단) 문화적 특징으로 구분 안 된다고 직접 언급됨.

[7번] ②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 내용도 그 자체로 이상하고, 다음 문단에서 극복되었다고 언급되는 '부동성 문제'와도 맥락이 맞지 않음. '부동성'의 의미를 추정해 보면 '움직이지 않는/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일 텐데, ㉡에서 언급한 시간과 비용은 어울리지 않는 요소임. 선지대로 수정하면 맥락이 자연스러움.

[8번] ①
(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는데 사회적 기여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됨. 소거법으로 ④, ⑤를 지움.
(나) 빈칸 앞 사례는 사회적 기여는 되었어도 기업이 단순히 원두를 비싸게 샀을 뿐이므로 맨 처음 봤던 '사회적 책임 이행'과 다를 게 없어 보임. ③을 지움. 확신하지 못한다면 바로 다음 문단이 "그런데, …새로 추진한 …은 공유가치 창출 프로그램이…"로 이어짐을 보고 ③을 지울 수 있음.
(다) 기업과 지역사회의 건설적 관계면 당연히 저 둘이 통합되는 방향일 것.

[9번] ⑤
1문단 논제는 사회 전반의 권위 구조에서 기인하는 사회 곳곳의 문제들을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응하는 방법임. 서두에 논제를 던진 경우 마지막에 글쓴이의 주장을 정리하는 미괄식 구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마지막 문단으로 점프. 첫 문장에서 '참여' 개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주체로 일반 시민을 지목하고 있음. 참여를 통해 사회 전반의 권위 구조를 민주화하자는 마지막 문장까지 보면 ⑤번이 글쓴이의 논지로 가장 적합함.

[10번] ①
① (2문단) 웹페이지에서 시선을 끄는 단서가 없을 때 F자형 패턴 읽기가 주로 나타난다고 정리했는데, 내용 그대로임.

[11번] ③
ㄱ. 전폐용량은 폐활량과 잔기량의 합인데, 폐활량계는 폐나 기도에 남아 있는 공기량(=잔기량)을 측정할 수 없음.
ㄴ. 전폐용량과 폐활량까지는 포함 관계가 명확하니 비교되지만, 기능적 잔기용량과 흡식용량은 비교가 안 됨. 전자는 호식예비용량 + 잔기량이고 후자는 1회 호흡량 + 흡식예비용량인데, 1회 호흡량과 잔기량 중 어느 쪽이 큰지를 모름.
ㄷ. 최대한 들이마신 상태는 전폐용량이고, 이는 폐활량에 잔기량까지 합친 것이므로 폐활량보다 큼.

[12번] ④
빈칸 뒷문장에서 "다니야마와 시무라의 추측이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로부터 "따라서 B는 거짓"이라는 결론이 나왔음. 추측이 참이라는 걸 넣어서 B가 거짓임을 도출할 수 있는 명제는 ④임. 후건부정으로 B가 거짓임이 도출됨.

[13번] ④
① 갑, 을이 참이면 "자율주행차 사용화"와 "운전이 힘들지 않다"가 참임. 정의 말이 참이 되려면 "교통사고는 현저하게 줄어든다"의 진릿값이 추가로 필요함.
② 갑, 정이 참이면 확정 명제가 하나도 없고, 을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를 도출시킬 수 있는 추론도 불가능함.
③ 을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병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가 거짓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음.
④ 무는 "운전이 힘들지 않다" "사람들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다"를 차례로 제시했고, 이 때문에 마지막 조건문에서 "교통사고는 현저하게 줄어든다"까지도 도출됨. 여기까지가 모두 참이면 병의 첫 문장이 거짓이 됨. 필요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듦.

[14번] ①
결론이 조건문이므로 A에서 시작해 F로 이으면 되는데, 이름이 많아 복잡해질 수 있으니 표를 그린다든가 해서 기록하며 해결함. 결론의 전건인 A O를 넣으면 조건1에서 G X가 나옴. G X를 조건3에 넣어 C X와 E X가 나옴.

이 상태에서 더는 추론이 불가능하므로, 결론의 후건인 F가 도출되는 조건을 찾아 보면 조건4임. D O를 넣어 후건부정해야 하고, D O는 조건2에 B O를 넣어 얻을 수 있음. B O가 필요함.

현재 기록된 게 A O, C X, E X, G X이고, 이것들 중 하나와 B O를 조건문으로 이어 주면 되는데 ①이 바로 그 조건문에 해당함.

[15번] ①

갑을 읽고 나서,

ㄱ: 태양 중심 체계에서 회전 반경과 회전 주기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으니 갑은 동의함.

ㄴ: 갑의 마지막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니 당연히 갑은 동의함.

ㄷ: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는 갑이 논의한 바가 없음.

ㄷ이 지워지고 선지가 ①, ③만 남아 을에 대해 ㄴ만 검증하면 됨.

ㄴ: 을이 이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코페르니쿠스가 미적인 이유만으로 자신의 이론을 옹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그런 이유도 있음을 함축하는 표현임(함정).

[16번] ④

㉠㉡을 먼저 보고, '감도' '반응시간' '선택도'에 대응시킬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선지에서 줄 것이라 예측하고 선지로 이동. 선지에서 언급된 실험 결과와 맞춰볼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만 강화약화 판단. 저것들은 아마 ㉠㉡ 바로 윗문단에 있을 것임. 지문 앞 부분은 쓸데없는 실험 배경 설명.

ㄱ: 저항값과 저항의 최솟값 간의 관계를 윗문단에서 찾아 보면 '감도'에 관한 것임. ㉠에서는 감도가 같다고 했는데, 실험 결과에서 노출 전 저항값이 서로 다르고 노출 후 저항의 최솟값은 서로 같으므로 감도 계산식에 넣으면 서로 같을 수 없음. ㉠이 약화됨.

ㄴ: 에탄올 기체만 추가한 공기, 다른 공기로 대체된 공기 등을 윗문단에서 찾아 보면 '선택도'에 관한 것임. ㉡에서는 MB가 MA에 비해 선택도가 더 크다고 했고, 실험 결과에서 다른 기체가 섞였을 때 MA에서 전기 전도도의 증가량 차이가 발생했음. 선택도 정의 맥락상 이러면 MB의 선택도가 더 클 것임. ㉡의 주장대로니 약화되지 않음.

※ 엄밀히는, 전기 전도도가 2문단에서 저항값으로 치환되고, 이것이 '감도가 많이 변하는 것'으로 치환되어 MA의 선택도가 낮다고 판단 가능.

[17번] ③

㉠㉡을 먼저 보는데, 같은 문단 안에 X, Y, A ~ C에 관한 정보들이 추가로 보이므로 모두 표로 정리해 둠.

	1	2	3
X	○	○	○
Y	○	○	
A	○	○	
B			○
C		○	

ㄱ: 선지의 사실대로라면 A와 B를 합쳐서 1, 2, 3이 모두 O일 수 없으므로 X가 A와 B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이 약화됨.

ㄴ: 정리된 상태 그대로도 X가 A와 B로 구성된다는 주장에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추가로 뭘 흡수한다고 해도 약화될 리가 없음.

ㄷ: A와 C의 혼합물이 3까지 흡수한다면 Y가 A와 C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이 약화됨.

[18번] ②

가설을 평가해야 하므로 우선 <가설> 섬으로 이동하고, A만 먼저 처리함. 실험 섬에 그룹이 쪼개진 게 보이므로 선지로 가서 시키는 대로 비교.

ㄱ: A대로라면 그룹 2, 3에서 모두 K를 할 가능성이 커져야 하는데 그룹 1과 차이가 없었으니 예측과 다름.

ㄱ이 지워져 선지가 ②, ④만 남고, B에 대해 ㄷ을 처리함.

ㄷ: B대로라면 그룹 2든 3이든 α의 양 차이를 키우니 K를 할 가능성이 커져야 함. 선지가 그 예측대로니 약화될 리 없음.

[19번] ①

코드 바꾸기는 언어 자체를 아예 바꿔 말하기

코드 뒤섞기는 주축 언어 사이에 다른 언어를 끼워서 같이 쓰는데 주축 언어의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주축 언어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범 · 문법 위반이 없는 언어 혼용은 코드 바꾸기로 간주 (마지막 문단)

(가): 한국어가 주축 언어이므로 사이에 I am happy를 끼워넣은 것은 주축 언어의 규범을 위반하는 것임.

(나): 마지막 문단의 설명을 이해하고 나면 결론이 나 있음. 규범 · 문법 위반이 없으므로 코드 바꾸기로 봄.

[20번] ②

① (3문단의 정착된 차용어 설명) '피아노'의 사용이 코드 뒤섞기가 아니라면 이것을 외국어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임.

② (마지막 문단) 주축 언어 확정이 안 되더라도 어느 한 언어의 규범이나 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코드 뒤섞기가 될 수 있음.

[21번] ②

① (2문단) 서울 인구 증가는 유랑하는 농민들이 생업을 찾아 모여들었기 때문. 선지의 이유는 전혀 언급된 바 없음.

② (3문단) 문단에 언급된 예시 그대로 쓰인 선지임.

[22번] ⑤

① 동경계회는 나이가 같은 이들의 모임인데 독서당이라는 관청의 개회가 그렇다고…는 보기 어렵지?

② 다뤄진 기억이 없어 스킵

③ (2문단) 그림은 직업 화가에게 의뢰한다고 했음.

④ (1문단) 동향계회에 속한 관료는 일생 동안 모임에 참여한다고 했음.

⑤ (3문단) 때로는 좌목에 일부 참석자의 부친의 관직, 본관, 자호를 기록하기도 했으니 비참석자의 것이 기록된 경우에 해당함.

[23번] ④

① 표시 여부의 변화를 다룬 기억이 없어 스킵

② (2문단) 쐐기문자 도입 시기가 기원전 3250년으로 선지와 맞지 않음.

③ (2문단) 쐐기문자 도입 이후에 실로 연결한 꾸러미 사용이 언급됨.

④ (3문단) 원금 25단위와 이자 3단위를 합친 28개의 토큰을 용기에 넣었으니 선지와 같이 추론됨.

[24번] ⑤

① 인구가 증가했다는 얘기도 없었고 가축도 부족하다고 했음.

② (3문단) 저지대에서의 식량 생산량은 매우 적었음.

③ 선지 자체로 말이 안 됨. 이렇게 고립된 환경이라면 면역 발달이 어려워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행병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음. 2문단에서도 설명한 내용임.

④ 뉴기니 발전 못했다는 얘기만 주구장창 한 글이었는데…. 1문단에선 아예 국가 조직 못했다고 했음.

[25번] ②

① (1문단) 탈식민지 국가들이 물 공급 민영화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했음.

② (3문단) 마지막에 제시된 예시 그대로임.

[26번] ④

빈칸 문단에서 학제를 초월한다는 언급과 함께 학제 무용화에 대한 우려를 반박하고 있으므로, 이 문맥에 어울리는 선지는 ④뿐임.

[27번] ①

(가): 빈칸 앞 문장과 함께 선지를 보면 ①, ②의 문장이 딱 들어맞음. 그림과 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대중은 영화에 비해 훨씬 적을 테니. 빈칸 뒷문장까지 보면 더욱 확실해짐.

(나): 빈칸 뒷문장을 보면 남은 선지 중 ①만이 자연스러운 문맥을 형성할 수 있음. ②에 있는 문장은 아예 딴소리.

[28번] ③

※ 평균비용, 한계비용 개념은 피셋 수험생에게는 권장될 만한 배경지식임. 경제학이 있는 직렬이라면 당연한 배경지식.

(가) 경쟁 이전 '모든 시설투자비'를 포함해 계산했으니 맥락상 평균비용이 들어가는 게 옳음.

(나) 이번에는 시설투자비를 제외하고 경쟁 시작 시점에 투입된 비용을 언급하고 있으니 맥락상 한계비용이 들어가는 게 옳음.

(다) 생산비용보다 높은 가격에 빵을 판매했음을 입증한다고 하니 적자가 줄고 있었어야 함.

[29번] ⑤

① 인간이 사냥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동물이라는 말은 없었음.

② 그런 도구가 개발되기 전에 어떻게 사냥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글인데?

③ 일시적 탈수 현상을 견디는 것과 운동 속도 간의 관계를 다룬 적 없음.

④ (3문단) 즉시 보충하지 않아도 돼서 탈수 현상을 견딜 수 있다고 설명함.

[30번] ③

㉠을 보고 다음 문단 첫 문장까지 살펴봤을 때 이익조정 유형이 둘로 나뉘어 있고 선지에서도 구분을 요구하니 발췌로 전환.

ㄱ. '생산량'을 늘렸으므로 실물이익조정의 설명에 들어맞음.

ㄴ. 광고비를 늘려 (자금에 영향) 이익을 조정했으니 실물이익조정에 해당함.

ㄷ. 실질 자원 변화는 없고 회계 방식만 바꿨으므로 장부상 이익조정의 설명에 들어맞음.

[31번] ③

1문단의 A를 먼저 읽고 처리

ㄱ: A가 제시한 자연종의 조건이 그대로 갖춰져 있으므로 자연종이라 봄.

ㄷ: 이런 케이스 너무 희귀해서 '노인'에 속하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속성에서 크게 벗어나 있으므로(40세) 노인이 아니라고 볼 것임. (A가 생각하는 '노인'이 공유하는 어떤 속성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므로 판단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을 듯)

이제 2 ~ 3문단의 B를 읽고 처리

ㄴ: B는 자연종이 되려면 선명한 구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어떤 것이 자연종이라면 그 기준이 있을 것임.

ㄷ: B는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65세 이상이라는 속성을 공유한다고 했으니 40세인 ㄷ의 한국인은 노인이 아니라고 볼 것임.

[32번] ①

A를 먼저 읽고 처리

ㄱ: 첫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는데 정당화된 사례이므로 약화함.

ㄷ: 둘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으므로 강화할 수가 없음. 둘째 조건에 관해 모호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례가 '강화'를 할 수는 없음.

B에 대해 ㄴ만 처리

ㄴ: 셋째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으므로 정당화되지 않는 게 맞음. 약화할 수 없음.

[33번] ③

변수 · 속성 표를 다음과 같이 세팅하고 조건에 따라 필기해나감.

	1	2	3	4	5
노					
구					
5					
1↑					

조건1: '노'에 ○, 합계조건 2 필기

조건2: 1번과 공통이 없으므로 '노'에 X, 불량품이므로 합계조건 1 필기

조건3: 2번과의 공통으로는 아직 할 게 없으므로 양품 합계조건 2만 필기

조건4: '구'에 ○를 필기하고, 3번과 공통이 없으므로 3번의 '구'가 X가 됨. 3번은 합계조건에 따라 나머지 '노', '5'가 모두 O가 됨. 3번과 공통이 없으므로 4번의 나머지 두 칸은 모두 X가 됨. 3번과 2번의 공통이 있어야 하므로 2번의 '5'가 ○가 되고, 2번의 합계조건에 따라 '구'는 X가 됨. 2번은 1번과 공통이 없으므로 1번은 '구'가 O, '5'가 X임.

조건5: '5'에 X, 4번과 공통이 있으므로 '구'에 ○ 필기.

조건6: 4번이 ○ 1개라 불량품이므로 5번이 양품이어야 함. 5번의 '노' ○

	1	2	3	4	5
노	○	X	○	X	○
구	○	X	X	○	○
5	X	○	○	X	X
1↑	2	1	2		

표가 위와 같이 완성되고, ③이 거짓임.

[34번] ⑤

함의를 함축이라고 바꿔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짐(밤도리 언어논리 이론의 논리 · 퀴즈 #05편을 잘 공부했다면, "P가 Q를 함축한다" = "Q가 P를 포함한다"로 기억하고 있을 것임).

ㄱ. 조건2에서 T가 S를 포함하고, 조건1에서 S는 P를 포함하므로 T가 P를 포함하는 관계가 완성됨.

ㄴ. 조건4는 T가 Q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뜻임(줄글 부분 '함의' 정의 참조).

ㄷ. S가 Q를 함축하면 Q의 내포가 S의 내포의 부분집합임. 그런데 조건3은 R의 내포가 S의 내포의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뜻임. 그렇다면 Q와 R이 서로를 함의하는 관계는 성립할 수 없게 됨.

[35번] ②

갑을 먼저 읽고 처리

ㄱ: 갑은 유성생식일 때 환경 변화에 마주했을 때 생존에 유리하다고 했고 선지는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례임. 약화할 리 없음.

ㄱ이 지워져 ②, ④만 남았으므로 을에 대해 ㄴ만 처리

ㄴ: 을은 무성생식일 때 생존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했고 선지는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례임. 약화할 리 없음.

[36번] ④

<실험 결과>를 먼저 보면 α, β, γ끼리의 대소 관계가 나열되어 있으므로 이를 먼저 표로 정리함. 밴드의 피크가 무슨 뜻인지는 일단 신경쓰지 않음. 선지에서 물은 것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대소 관계에 비춰 발췌독함.

발췌독 과정에서 1문단보다 2문단을 우선시해야 함.

ㄱ. G를 D로 나눈 값이 클수록 결정성이 큼. α는 β와 D가 같고 G는 더 크므로 α의 결정성이 더 큼. β는 D<G이고 γ는 D=G이므로 이쪽에서는 β의 결정성이 더 큼.
ㄴ. 샘플에 SW - CNT나 DW - CNT가 존재할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파수 300 cm^{-1} 이하에서 피크가 나타난다는 정보가 있음. 그러나 β가 SW나 DW 중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겠다는 추론이 가능할 뿐, 2종 이상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음.

[37번] ③

실험 결과가 친절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먼저 보지 않고 선지를 확인. "그렐린이 AMPK를 인산화할 때 필요한 것"에 관해서만 먼저 실험 설계와 결과를 분석하기로 함.

실험 1에서 그렐린이 AMPK를 인산화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했고, 그게 AMPK 인산화 여부 표에 정리되어 있음. 그런데 M, MX, MY가 뭔지 모르니 이걸 확인하러 <실험> 섬 위로 이동. M는 정상, MX와 MY는 각각 X, Y를 제거한 것이므로 헷갈리지 않게 X와 Y가 제거되었다고 표시해 둠.

X가 제거된 쥐는 정상 쥐와 같이 S1(그렐린 포함)에 의해 인산화되었는데, Y가 제거된 쥐는 그렇지 않으므로 Y가 필요하다고 추론 가능함. 선지를 소거하고, 인산화된 AMPK가 ROS 생성을 저해하는 데 X와 Y 중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려 실험 2를 봄.

그걸 확인하려면 '인산화된 AMPK가 있는 상태에서, X 혹은 Y의 존재 여부에 따른 ROS 생성 저해 여부 차이'를 관찰해야 함. 따라서, ROS 생성을 저해하는 P 억제제가 포함된 S2를 주입한 실험군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함. AMPK 인산화 여부 표에서 이 비교가 가능한 대상은 S1을 주입한 M과 MX 뿐임(짬바가 있다면 여기까지만 보고 ③ 선택 가능).

S1을 주입한 MX는 먹이를 섭취하지 않았고 M은 섭취(ROS 생성 저해)했으므로 X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옴.

[38번] ③

가설 A부터 보고 처리(<가설> 위쪽은 배경 설명이므로 전혀 읽지 않음), 선지 구조가 전부 비슷하므로 실험에서 가설의 예측에 맞는 비교 결과를 미리 만들어놓기로 함. 초식 동물이 없는 초본 생태계에서 비옥하지 않은 경우와 비옥한 경우를 비교하려면 모형 1과 3을 비교해야 하고, A의 예측대로라면 종 다양성이 1 < 3이어야 함. ③이 이 예측을 벗어났으므로 약화됨.

[39번] ①

① A는 행위가 '이유 - 반응적'이라고 정의되는 기준을 이야기했을 뿐 모든 행위가 반드시 이유 - 반응적이라고 한 적이 없음.

[40번] ②

ㄱ. (39번에서 생각했듯이) A는 모든 행위가 이유 - 반응적이라고 하지 않음.
ㄴ. B는 믿음은 이유의 종류가 인식적 이유에 국한된다고 했으므로, 도덕적 이유에만 반응해서 믿음이 형성된 사례는 그것과 상충함. 강화할 리 없음.

[자료해석]

[1번] ⑤

ㄱ. (1문단) 또한, 2024년에는 '기타'를 제외하고 '학원'의 이용용도 비중이 가장 작았고, 그다음으로 '업무', '쇼핑'의 순이었다. → 학원이 최하위이고 업무가 뒤에서 2등이어야 하는데, 쇼핑이 업무보다 작음. ①, ②, ③ 소거하고, 보고서 순서대로 보기에서 ㄷ 맞춰보기로 전환.

ㄷ. (3문단) 공용자전거 A의 이용 시 불편사항으로는 '무거운 자전거'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대여소간 연계성 부족', '잦은 고장'의 순이었다. → '잦은 고장'이 '대여소간 연계성 부족'보다 큼.

[2번] ①

A: 한 도로종류만 확인해도 답을 낼 수 있음. 맨 위부터 보면 버스가 눈에 띄게 가장 작음.

B: 2024년 고속국도에서는 승용차의 비중이 [52, → 36,]이고, 일반국도는 [13, → 10,]임. 전자는 70%가 안되지만 후자는 70%를 넉넉히 넘음. 고속국도가 더 작음.

C: 2024년 지방도 교통량 소계는 전년 대비 감소했고 버스 교통량은 증가했으므로, 버스의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함.

[3번] ②

ㄱ. 원칙대로라면 눈이 피곤해 안 풀 선지인데, 오른쪽을 슥 보니 나머지 선지들도 눈이 피곤하긴 마찬가지일 것 같으니 그냥 검증함. <표 2>와 맞춰보면 틀린 점 없음. ③, ④, ⑤ 소거.

ㄴ. '2021년 분야별 재정지출 구성비'는 <표 2>에서 2021년의 '계' 대비 각 분야의 비율로 도출됨. 가장 큰 사회복지부터 맞춰보면 차트에서는 30%가 안된다고 하는데 표에서는 [560 → 185]로 봐도 30%를 넘음.

※ 가장 가장 큰 구성비부터 계산이 틀리게 설계한 차트는 최근 기출에서도 등장한 바 있음(23_5_11번). 그러나 보편적으로 '먼저 풀' 차트로 추천할 만한 형태는 아니며(항목이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옳은 차트면 운영 망함), ㄴ 시도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으면 곧장 ㄷ을 보러 가야 하고 ㄷ은 무난하게 단순 확인으로 검증 가능.

[4번] ④

ㄱ. 중부 지방은 2020년보다 기간이 짧은 행이 없지만, 남부 지방은 위쪽에 2020년보다 긴 46일이 있음. ①, ② 소거.

ㄴ. ㄱ을 풀면서 남부 지방 기간을 모두 스캔했다면 아까 본 46일이 유일하게 40일 이상인 해임을 떠올릴 수 있음. 그 해 중부 지방의 기간도 40일 이상이니 옳음. ⑤ 소거.

ㄷ. 2014년은 7월 2일부터 28일이므로 7월 29일이 종료일임. 2017년에 장마 기간이 29일이면서 7월 29일에 끝났다면 시작일은 7월 1일임. 6월이 아님.

※ '기간'은 날짜 차이 + 1로 계산됨. 즉, 7월 2일부터 28일의 기간이라면 7월 2일과 날짜 차이가 27일 나야 함.

[5번] ⑤

① A대학은 정확히 60명 선에 있고, B대학은 40명 선부터 세어 보면 23명이 더해져 있으므로 3명 많음.

② A대학 지원자 수는 1,200명보다 많고 B대학은 800명보다 조금 많은 수준임. 1.2배보단 당연히 더 차이 날 것임.

③ 막대 크기를 직관적으로 관찰하면 옳은 선지.

④ A대학이 모집인원 60명 - 지원자 1,200명 초과로 20배 이상이 맞고, B대학은 모집인원이 그보다 많고 지원자는 적어 경쟁률 낮은 게 맞음.

[6번] ③

무과제도가 존재했던 1402년부터 1894년까지 천 명 이상의 무과급제자를 배출한 연도수는 ~~14개였고, 그중 10개 연도가~~ 1618년부터 1894년 사이였다. → ① 사용

특히 1676년에는 ~~17,652~~명의 무과급제자가 배출되었다. → ①로 해결

예를 들어, 조선 초기에 ~~15~~년이나 ~~16~~년에 한 번씩 시행했던 증광시는 조선 중기 이후 ~~5~~년이나 6년에 한 번씩 시행하였으며, 별시의 시행도 잦았다. 특히 정시와 알성시, 외방별시는 조선 초기보다 후기에 더욱 많이 시행되었는데, 1608년부터 1894년 사이에 정시 ~~194회~~, 알성시 ~~56회~~, 외방별시 ~~32회~~가 시행되었다. → 대응되는 선지 없음

1608 ~ 1894년 동안 무과급제자의 주요 성관 비중을 살펴보면, ~~김해 김씨 5.1 %, 전주 이씨 4.7 %, 밀양 박씨 4.0 %, 경주 김씨 2.2 % 등이었다~~. → ② 사용

또한, 광해군 이후 무과급제자의 출신지역 비중을 살펴보면 ~~철종 재위 기간까지 출신지역 비중이 가장 컸던 지역은 한양 또는 경기였고, 전라 출신 무과급제자의 비중은 효종 재위 기간에는 19.6 %였으나 이후 감소하다 헌종 재위 기간부터 다시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 ④ 사용

… 고종 재위 기간에는 신임 군영 장군 33명 중 문과급제자 출신이 8명이었다. → ⑤ 사용

[7번] ③

① 미집행 인원 빈칸을 채우기 귀찮은데, 나머지 선지를 슥 살펴보니 거의 다 미집행 인원을 언급하고 있어서 채우는 게 의도인 문제 같음. 미집행 인원 계산 구조가 전년 + 당해신규 - 당해폐지와 같으니 배경지식에 기반해 금방 이해하고 계산에 착수해 전부 채워 버림. 전년도 미집행 인원에 (확정 - 변동)을 더하면 됨. 빈칸 순서대로 39, 49, 51, 50, 44로 채워지고 가장 적은 연도는 2023년이 아님.

② 해당 기간 집행 인원은 6명, 감형 인원은 그 3배가 안되는 17명임.

③ 조건문 선지이지만 집행 인원이 있는 해가 없는 애보다 훨씬 적으므로 정방향으로 해결함(②를 풀며 집행 인원 열을 관찰함). 집행 인원이 있는 3개 행은 모두 미집행 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음.

[8번] ④

① 막대를 통째로 보면 조세수입이므로 높이를 관찰하되, 애매한 구간은 국세와 지방세 막대의 차를 관찰해 봄. 예컨대 22→23 구간은 국세가 8 빠지고 지방세는 그보다 크게 늘었으니 통과임.

② 국세 수입은 23년 285에서 24년 344로 60가량 증가함. 이는 285의 20%를 넘음.

③ 지방세는 22년 90에서 23년 102로 10%보다 유의미하게 크게 증가했고, 나머지 구간들은 모두 이보다 작음. 23→24 구간은 아주 정확히 10%에 가까우므로 비교가 안 됨.

④ 상대비 따지거나 해야 하는데 귀찮으니 일단 ⑤를 살펴봄. 그런데 ⑤가 더 간단함.

⑤ 2024년 국세와 지방세 차이가 230쯤 되는데 이보다 큰 차이가 나는 연도는 없음.

[9번] ④

ㄱ. 환승유입과 환승유출 각각 가장 큰 값부터 찾아 보는데, 1위부터 다른 행에 있음. 환승유입은 저 밑에, 환승유출은 그 행의 값(14,…)보다 큰 게 위에 보임. ①, ⑤ 소거.

ㄴ. 표 구조상 하차가 순하차와 환승유출의 합이므로, 순하차가 빈칸인 행은 환승유출이 하차의 과반인지를 확인하면 됨. 모든 행이 선지의 진술에 부합함. ③ 소거.

ㄷ. N의 순승차와 순하차 차이는 13명이고, 이보다 작은 차이가 나는 역은 없음. (다른 행들에 비해 차이가 매우 작으므로 비교군이 몇 개 없음)

[10번] ③

① <표 1>에서 전체 건수가 12,---건이므로 5%면 600을 넘을 텐데, 정부 건수는 이에 못 미침.

② <표 1>에서 의원 발의 건수가 11,573이고 계류가 9,096으로 관찰됨. 115 × 8 = 920이므로 80%보다 작음. (이 계산이 수월하지 않다면 일단 넘겼어야 함)

③ <표 2>에서 여성 발의 건수는 2,559이고 법률반영 건수는 522로 관찰됨. 255 × 2 = 510이므로 20%보다 큼.

[11번] ②

ㄱ. 경제통상국의 건당 보도횟수는 A, B, C의 가중평균으로 계산될 것이고, 가중치는 '건수'가 됨. 유일하게 5회 이상인 A가 보도건수 176건인데, C가 그보다 많은 204건의 보도건수를 가짐. A와 C만 보면 5.49와 4.46의 산술평균(5보다 작음)보다 C의 4.46 쪽으로 더 기울어질 테고, 남은 B도 4.21회이므로 경제통상국 전체는 5회 미만으로 떨어짐. ①, ④ 소거.

ㄴ. E의 해당 비중은 855 → 560으로 관찰되는데, 당장 정확한 비율을 어림하는 게 애매하니 비교군인 D와 F를 먼저 관찰함. D는 보도횟수가 더 적고 신문은 크니 E보다 비중이 큼. F는 E와 비교했을 때 신문에 비해 보도횟수가 훨씬 더 큰 비율로 작으므로 역시 E보다 비중이 큼. ③ 소거.

ㄷ. 현재 농업정책국의 보도율은 [399 → 290]으로 계산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각각 10을 더하면 [409 → 300]이 됨. 4 → 3이 정확히 75%인데 앞에 수가 더 붙어 있으니 75%보다 작음.

[12번] ④

ㄱ. 농촌에서 면적 500 이상인 센터의 비중은 [76 → 40]이고, 도시에서 면적 100 미만인 센터의 비중은 [180 → 99]임. 도시의 수가 예뻐서 먼저 계산해보면 정확히 55%가 나오는데, 농촌은 50%를 취했을 때 벌써 38이나 되어서 55%까지는 못 감. ①, ② 소거.

ㄴ. 전체 중 농촌의 비중은 <표>의 계를 이용해야 하는데, 전체 값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상대비 [76 → 180]으로 관찰하기로 함. 같은 방식으로 100 이상 200 미만 중 농촌의 비중은 [9 → 28]로 관찰됨. 후자는 3배를 넘는데 전자는 그렇지 않으므로, 전자의 비중이 더 큼. ⑤ 소거.

ㄷ. <그림>에 센터 1개소당 간호사 수가 있으므로 <표>에 곱하면 간호사 수를 구할 수 있음. 농촌은 [76 × 6.28], 도시는 [180 × 9.06]으로 관찰됨. 76 → 180은 2.5배가 안되고, 6.28 → 9.06은 1.5배가 안됨. 2.5 × 1.5를 해도 4가 안되니, 4배 미만임.

[13번]

ㄱ. <표 1>에서 조정중재성립 구성요소 중 중재가 거의 없다시피 하므로 그냥 더해서 채워 풀면 될 듯함. 2019년의 합의와 성립을 합하면 예쁘게 1,030이 나옴. 드러난 수들은 모두 이보다 작고, 2023년의 합의, 성립, 중재 수치를 관찰해 보면 더해서 1,030은 안됨. ④, ⑤ 소거.

ㄴ. <표 1>에서 조정중재성립률의 구성요소인 각하가 다른 두 요소에 비해 너무 작으므로 일단 무시함. 그러면 2020년의 조정중재성립률은 [1,624 → 982]로 관찰되는데 바로 밑에 종료는 더 적고 성립은 더 많거나 비슷한 행들이 보임. ① 소거. (해석이 수월하지 않다면 일단 넘겼어야 함)

ㄷ. <표 2>에 기관유형별 조정중재성립 건수가 그대로 나와 있음. 매년 병원이 가장 많음.

[14번] ①

① '2023년 조정 건수 구성비'는 <표 1>에서 조정중재종료 건수를 이용해서 어림할 수 있음. 조정중재종료가 조정 + 중재인데, 아까 13번에서 생각했듯 중재의 존재감이 거의 없다시피함. 따라서 1,460 대비 조정의 각 항목 비율을 차트에 맞춰보면 됨. 큰 값부터 맞춰보면 합의가 60% 조금 넘는 건 그럴듯하니 넘어가는데, 부조정이 20% 가까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됨. [1,460 → 120]인데.

※ 얼토당토않은 계산이라 불필요하지만, 굳이 차트 만든 패턴을 분석하자면 부조정은 8.2이고 결정이 17.5가 나와야 함. 십의 자리 1을 다른 데 붙여둠.

[15번] ①

조사결과, 2024년 '상급' 직급 정원 비중은 '갑'기관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보다 컸다. → 1급과 2급의 합이 전체의 약 10%에 못 미치는 C 소거.

한편, '갑'기관의 '중급' 직급 정원 비중은 40 % 이상이지만, '유사업무 수행 공공기관'의 '중급' 직급 정원 비중보다는 작았다. → 3급과 4급의 합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가 버린 B, D 소거.

또한, '갑'기관의 '하급' 직급 정원 비중과 '유사업무 수행 민간기관'의 '하급' 직급 정원 비중의 차이는 30 %p 이상이었다. → 5급과 6급의 합이 40% 선엔 한참 못 미치는 E 소거.

[16번] ④

ㄱ. 남성과 여성 열의 단순한 대소비교. B, C 2개임. ①, ⑤ 소거.

ㄴ. 인구가 가장 많은 E부터 내림차순으로 보면 E는 [4,1 → 4,4] D는 [1,6 → 1,7] C는 [1,1 → 1,0]으로 관찰됨. DC 구간은 남성이 더 많다가 적어졌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고, ED 구간은 다음과 같이 비교됨(증가율로 전환).
D: 정확히 1/16로 간주
E: 3/41이니 1/16보단 큼. ③ 소거.

ㄷ. 여성 중 읍 비중은 [13,1 → 6,3], 남성 중 면 비중은 [13,8 → 7,2]로 관찰됨. 대상 차이가 900 정도밖에 안되어 13,1을 기준으로 하든 13,8을 기준으로 하든 10%가 안됨.

[17번] ④

ㄱ. <표 1>에서 단순 비교. 맨 왼쪽부터 바로 공공연구소가 많음. ①, ⑤ 소거.

ㄴ. 중소기업은 8,775, 유상기술실시 5,441을 먼저 관찰하고, 여집합 항목을 관찰해 봄. <표 2> 쪽은 항목도 많고 수치도 커서 빼기 귀찮지만 <표 3>의 여집합들은 수치가 얼마 안되므로 이쪽을 빼기로 함. 선지의 기준대로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되려면 4,400 언저리여야 할 테니 4개 항목을 더해 1,000이 넘어가면 위험해지는데, 넷을 더해도 1,000에는 한참 못 미침. ③ 소거.

ㄷ. <표 2>에서 유상양도와 무상양도의 합과 전체의 비를 따짐. 25%는 곱하기 귀찮으므로, 저 합에 4를 곱했을 때 전체 이상이 되면 체크한다고 기준을 바꾸고 시작. 16년과 19년부터의 4개 연도까지 5개가 체크됨.

[18번] ①

ㄱ. 가장 오른쪽에 찍힌 2024년 점은 폴란드이고, 폴란드의 2014년 점까지의 수평 거리를 그린 뒤 비교해보면 다른 국가들보다 모두 깊. 애매한 비교군은 괄호 안 수치를 이용해서 비교. ②, ③ 소거.

ㄴ. ㄱ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 가장 아래에 찍힌 2024년 점은 리투아니아이고, 2014년 점과의 수직 거리를 그린 뒤 비교해보면 더 짧은 미국을 발견할 수 있음. ④ 소거.

ㄷ. GDP 대비 장비비는 국방비 비율과 장비비 비율의 곱이므로, 미국의 24년과 14년 점 중 어느 쪽이 더 우상향해 있는지 봐야 함. 그런데 눈으로 보기 애매하므로 곱셈비교로 전환. 2024년은 [3.38 × 29.9]이고 2014년은 [3.71 × 26]으로 관찰됨. 3.38 → 3.71 방향으로는 증가율이 10%쯤인데 26 → 29.9 방향으로는 10%를 유의미하게 넘음. 2024년이 더 큼.

[19번] ③

① 선지에 언급된 두 지표 모두 판단하기 귀찮아서 일단 스킵.

② 2024년 상위 3개는 [54, 45, 29,]로 합하면 130,--- 조금 안될 것임. 전체가 175,---이므로 남은 부분이 45,---쯤 된다는 건데, 45에 3을 곱하면 130을 넘어감. 상대비가 3배가 안되므로 75%보다 작음.

③ 2023년에는 [156, → 25,]인데 기준을 160으로 봐도 15%가 24이므로 15%를 초과함. 2024년에는 [175, → 29,]인데 역시 기준을 180으로 올려봐도 15%가 27이므로 15%를 초과함.

[20번] ④

7급 자료해석에서 두 번인가 출제된 계산 구조인데, 이렇게 냈으면 어차피 계산 밀어놔야 풀리거나 더 편할 거로 짐작하고 여차하면 쭉 계산하기로 함. 단, 계산 없이도 풀리는 문장 선지가 있을지 모르니 한 번 관찰해보면 ㄷ은 주어진 자료 그대로도 풀림.

ㄷ: 전체가 321이고 C는 33이니 10% 넘음. ①, ② 소거.

남은 선지 중 ㄱ보다 ㄴ이 볼 게 적으므로 A와 E만 먼저 계산. 퇴사자수에 퇴사율을 역산하면 입사자수가 나오므로 이를 먼저 퇴사자수 옆에 필기해둠. 둘의 차이에 순환율을 역산하면 부서인원수가 나오므로 이를 순환율 옆에 필기해둠(ㄴ을 풀 땐 부서인원수가 필요 없으나, ㄱ을 풀지도 모르므로 그냥 해둠).

ㄴ: A의 입사자수는 50명, E의 입사자수는 120명임. ③ 소거.

ㄱ: 고맙게도 A의 퇴사율이 E보다 높은데 부서인원수는 더 적어서 나머지를 계산할 필요 없이 풀이 종료. (A는 15명이 15%이므로 100명, E는 84명이 30%이므로 280명)

[21번] ④

ㄱ. 2023년까지는 <표 1>에서 차이가 매년 증가했지만, <표 2>에 2024년 과일섭취율이 있으므로 여기까지 봐야 함. 2023년의 차이는 1.6이었지만 2024년에는 1.4로 감소함. ①, ② 소거.

ㄴ. <표 1>과 <표 2>의 단순 비교. 모두 감소하였음. ⑤ 소거.

ㄷ. 24년 여자 중학생 조사대상자 수가 14,---명쯤이고 과일섭취율이 20% 살짝 안되므로 과일섭취자 수는 2,800명이 좀 안되는 정도일 것임. 2020년 여자 중학생 과일섭취율이 정확히 25%이므로 이를 2,800명에 역산하면 10,000명을 넘어감.

[22번] ③

① 막대 높이 차이의 직관적 비교. 2024년 막대가 높은 쪽이 4군데이므로 더 많음. (G는 7번째 알파벳임)

② 단위가 만 톤으로 일치하니 수치만 단순 비교. 100 넘게 차이 남.

③ 2023년 전체가 없어 귀찮으니 일단 스킵.

④ C의 증가폭이 60쯤 되는데, 이보다 크게 증가한 곳은 없음.

⑤ 이 선지가 옳다면 2024년 발생량 4위인 620보다 평균이 작고, 5위인 392보다는 평균이 커야 함. 항목이 7개이므로 7개 합이 약 2,800 ~ 4,200 범위에 들어야 한다는 뜻임. 큰 값부터 대충 더해 보면 3천 후반대가 나오므로 옳은 선지. (이 선지와 ③번 중 어느 걸 풀지는 취향 차이)

[23번] ②

ㄱ. 참여자수는 대상자수에 참여율 곱해서 나올 텐데, 2020년에 대상자수는 1% 안되게 감소하고 참여율은 1%보다 크게 증가함. 참여자수는 증가할 것임. ③, ⑤ 소거.

ㄴ. 2020년 수료율이 나와 있으므로 이를 기준 삼아 판단. 단위가 천 명이므로 콤마 바로 앞자리가 백만 단위가 되고, [26 → 9]가 36.5%보다 큰지 판단하면 됨. 바꿔 말해서, 26의 36.5%는 9보다 작은가? 36의 1/4(=25%)이 정확히 9이므로, 36.5 × 26%는 당연히 9보다 큼. 따라서 26 → 9는 36.5%보다 작음. ① 소거.

※ 공교롭게도, 36 × 25는 23년 5급 24번에서 활용된 곱셈임.

ㄷ. 2021년의 참여율은 대상자수와 참여자수가 나와 있으니 구할 수 있겠지만, 2022년의 참여율은 참여자수가 없어서 구할 방법이 없음.

[24번] ⑤

※ 인구구조지표는 암기 사항임. 밤프콘 스터디원들은 배경지식 활용했으리라고 기대함!

ㄱ. 선지의 두 지표가 각각 산포도의 두 축에 있으므로, 모든 점이 우상향하는 분포를 보여야 함. 원점부터 올라가며 관찰하면 B까진 괜찮은데 A가 우하향했음. ①, ④ 소거.

ㄴ. 노년부양비와 고령인구 구성비가 주어져 있으므로 이 둘을 이용하면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를 도출할 수 있음. 생산연령인구(%) 대비 고령인구(%)가 노년부양비이므로 고령인구 구성비를 노년부양비로 나눈 값이 생산연령인구 구성비임. A는 [16 / 56]으로 관찰되니 대충 30%가 안되는 수준인데, 나머지 점들 중 이보다 낮아 보이는 게 없음. ③ 소거.
(매끄럽게 읽는다면 '노년인구 16이 생산가능인구 ___의 56%구나!'가 됨)

ㄷ. B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21%이고 E는 9%임. 공교롭게도 선지의 기준값 15%가 21%와 9%의 산술평균인데, 가중치가 될 총인구가 B < E이므로 고령인구 구성비는 15%에서 E의 9% 쪽으로 더 내려갈 것임.

[25번] ③

① 20대의 재학생 수가 40대의 5,950을 훨씬 상회함. 학부 · 대학원 열에서 쪼개져 있다고 해서 연령대 자체가 쪼개진 것이 아님에 주의.

② 대학원 재학생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이고, 학부 대비 대학원 비율은 [5,950 → 340]으로 관찰됨. 6%가 조금 안되는 비율인데, 바로 밑의 50대가 [4,430 → 280]으로 6%를 상회함.

③ 성인학습기 대학원 재학생은 전체에서 학령기 19명을 뺀 1,010명이고, 이것의 90%라면 직장인은 딱 900명쯤 됨. 40대를 제외한 나머지로 이 인원을 전부 채우려고 해도 합이 700명에 꽤 모자라서, 200명 넘게 남음.

[26번] ⑤

첫째, 미세먼지 노출시간이 매 1시간 증가할 때, 남성과 여성 모두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증가한다. → 2 ~ 3시간 구간에서 여성이 감소한 C 소거.
둘째 → 귀찮으므로 일단 스킵.

셋째, 미세먼지 노출시간이 매 1시간 증가할 때, 호흡기 질환 발병률의 증감폭은 여성이 남성보다 크다. → 1 ~ 2시간 구간에서 남성이 더 큰 A, D 소거.

넷째, 호흡기 질환 발병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 미세먼지 노출시간이 4시간일 때가 2시간일 때의 1.3배 이상이다. → B, E 모두 통과.

둘째, 남성과 여성의 호흡기 질환 발병률 차이는 미세먼지 노출시간이 3시간일 때가 1시간일 때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이다. → 1시간에서는 0.3, 3시간에서는 1.7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B 소거.

[27번] ②

ㄱ. 이 제목을 쓰려면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잔액 비율과 가계부채 잔액을 맞춰봐야 함. <표>에서 역산하는 건 머리아프니 차트에 주어진 수치에 비율을 곱했을 때 가계부채 잔액이 나오는지로 판단. 대충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으니(딱히 틀려 보이진 않음) ④, ⑤ 소거.

ㄴ. <표>에서 가계부채 잔액을 기준 잡고 가계대출 잔액, 판매신용 잔액, 자금순환표 상 개인부채 잔액의 비율을 확인해야 함. 가장 큰 것부터 맞춰보면 가계대출 잔액은 크게 틀려 보이지 않는데, 자금순환표 상 개인부채 잔액은 크게 벗어남. 22년에 가계부채 잔액은 약 2,200이고 자금순환표 상 개인부채 잔액은 약 330이라 17.6%까지 갈 수가 없음. ① 소거.
※ 자신 없으면 풀지 말고 뒷선지들을 살폈어야 한다.

ㄷ. 주택담보대출 잔액 행에서 단순한 차 비교임. 각 구간을 맞춰 보면 모두 옳다고 검증됨.

ㄹ. (패턴 학습을 위해 추가) 차트 제목은 [비은행 · 기타분 잔액 → 예금은행분 잔액]인데, 차트의 수치는 '판매신용 잔액' 행의 수치를 그대로 갖다 씀.

[28번] ①

ㄱ. <표 1>에서 요양급여비용 - 외래 행을 보고 판단함. 21년부터 순서대로 10% 조금더, 아주 쬐끔 증가, 10% 살짝 안되게, 15%쯤 증가했는지 판단해 보면 크게 틀려 보이지 않으므로 ②, ③ 소거.

ㄴ. 진료인원에 인당 진료일수를 곱하면 진료일수를 알 수 있음. 인당 진료일수를 각각 20, 30이라고 하면 외래 진료인원에다만 1.5를 곱하는 것과 같은 결론인데, 그럼 입원은 7,5-- 외래는 72,--- 정도가 될 것임. 10배 살짝 안되는 관계가 맞으므로 ⑤ 소거.
※ 자신 없으면 빨리 넘겨야 하는 차트

ㄷ. <표 2>에서 2022년의 전체 대비 의원 ~ 병원의 비율을 판단해야 함. 종합병원까지는 그럴듯하거나 애매해서 스킵하는데 병원이 4%가 안된다는 건 크게 엇나감. 전체가 140만쯤이고 병원이 8만을 넘으니 4%는 무조건 넘음.

[29번] ③

① 생후개월별 감염 개체 수는 <표 3>에서 개체 수와 감염률을 곱해 알 수 있음. A의 24 ~ 36개월은 [1,465 × 58%]로, D의 36 ~ 48개월은 [1,092 × 74.7%]로 관찰됨. D의 숫자가 더 예쁘니 먼저 기준을 잡음. 1,000×75%가 정확히 750인데, 곱해지는 수가 10% 큰 1,100쯤 되고 75%에는 살짝 모자라니 대충 820이라고 가정. A는 1,400의 60%라고만 대충 퉁쳐도 840이 되니 A가 더 큼.
※ 관찰 후 비교가 막막해지는 기분이 들면 스킵했어야 함.

② <표 3>에서 직접 확인됨. 48개월 이상이 더 낮음.

③ 성별 감염된 개체 수 차이는 각 품종의 감염 개체 수에 <표 2>의 감염 개체의 성별 구성비 차이를 곱하면 구할 수 있음. D는 [3,6-- × 14%]로 관찰되는데, A와 B는 구성비 차이가 월등히 커서 비교 대상이 안 됨. C는 [5,5-- × 10%]이니 딱 550쯤 나올 텐데, D의 계산을 해도 550까진 안될 것임. D가 가장 적은 게 맞음.

[30번] ⑤

ㄱ. <표 2>의 성별 구성비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될 것처럼 생겼지만, <표 2>는 '감염 개체의 성별 구성비'이기 때문에 쓸 수 없음. 이 선지의 제목대로라면 성별로 나뉜 접종 개체 수와 감염 개체 수가 모두 필요함. 그런 자료는 없으므로 ①, ② 소거.

ㄴ. <표 3>의 24 ~ 36개월 행에서 개체 수 × 감염률로 나온 값들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는 차트임. 검증한다면 A가 B보다 크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끝나겠지만, 귀찮으므로 스킵한 선지.

ㄷ. <표 1>에서의 비율 판단. 모든 수치가 크게 틀려 보이지 않으므로 ④ 소거.

ㄹ. <표 2>의 C 열을 그대로 가져다 작성할 수 있는 제목임. 수치가 모두 옳으므로 ⑤가 정답.

[31번] ①

① 양쪽의 1위부터 확인해 내려가기로 함. 2023년의 부채규모는 <표 2>에서 하수도가 1위임. 하수도의 부채비율은 [504, → 48,]로 10%가 조금 안되게 관찰되는데, 자동차운송이 [167 → 26]으로 10%를 훌쩍 넘음.

[32번] ⑤

○ '소나무'는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의 운행시간이 5분 이상이다.
<표>의 시간 단위가 '초'이므로 조건을 300초로 환산. 운행속도 → 운행거리 방향으로 300배 이상 나오는 게 소나무일 수 있음. B와 D가 이에 해당함. 필기해두고 다음으로. 조건3은 딱 봐도 귀찮아 보이니 풀어도 마지막에 풀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감.

○ 대인 2명과 소인 2명의 케이블카 이용요금 총합은 '소나무'와 '돌고래' 사이에서 차이가 가장 크다.
이용요금에서 (대+소)×2의 계산을 해야 하는데, 숫자들이 딱히 어렵지 않으니 그냥 함. A부터 순서대로 53, 86, 36, 60으로 기록되고, 차이가 가장 큰 조합, 즉 최댓값과 최솟값은 B와 C임. 소나무가 BD 중 하나였으니 소나무가 B, 돌고래가 C로 확정됨. ①, ③, ④ 소거.

○ 200명의 승객이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이동하기 위한 운행대수를 최소화할 때, 총운행시간이 가장 짧은 케이블카는 '호랑이'이다.
A와 D만 비교해서 그중 더 짧은 쪽이 호랑이임. 각 케이블카가 200명의 승객을 옮기기 위한 최소환의 운행대수는 200을 승객정원으로 나눈 몫에서, 소수점이 있는 경우 반드시 올린 값임. A는 5대, D는 4대를 운행해야 함. 차량을 1대씩 순차적으로 운행해야 하니 운행거리와 운행속도로 운행시간을 구한 뒤 거기에 각각 5와 4를 곱해 비교하는 상황임.

A는 한 번에 대충 190초가 걸릴 거고, D는 360초쯤 걸릴 것임. 시간 차이가 너무 커서 A가 한 번 더 운행한다고 해도 D가 더 오래 걸림. A가 호랑이.

[33번] ④ (1031 동일 유형 수록)

구해야 하는 (가)는 B세트에 들어가고 남은 '소' 크기의 상, 중 사과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트 개수임. 크기별로 구성한다고 했으니 A세트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B로부터 추론을 시작함.

만약 B에 '상'만 10개 들어갔다고 우기면 50,000원이 나와야 하고, 그 상태에서 '상'이 '중'으로 하나 교체될 때마다 2,000원이 줄어듦. 따라서 B는 상 7개와 중 3개로 구성된 세트임.

B에서 쓰고 남은 '소' 사과들을 C에서 남김없이 써야 하므로, B에서 쓰고 남은 '소-상'과 '소-중'의 사과 개수는 특정한 수를 공약수로 가져야 함. 그러나 그게 몇일지 단번에 캐치하기는 어려우므로 B의 세트를 1개씩 늘려가며 남은 수를 생각함.
B 1개 → 상 31개, 중 19개 남음. 둘 다 소수이므로 공약수 X
B 2개 → 상 24개, 중 16개 남음. 4가 공약수임. (가)는 4.

[34번] ②

ㄱ. 2024년의 해당 비율은 [4,300 → 430]으로 정확히 10%임. 따라서 2023년의 해당 비율이 11.5% 이상이면 옳은 선지. 2023년은 [4,500 → 536]인데, 4,500의 12%가 정확히 540이므로 조금 빠져봤다 11.9% 언저리에 있을 것임. ③, ⑤ 소거.

ㄷ. 귀류법적으로 접근. 만약 월간 구독료가 15,000원 이상인 신문이 없다고 가정하면 2024년에 월간 총 신문 구독료가 3만 원 이상 나온 가구는 그것보다 싼 신문을 3개 이상 구독해야만 존재할 수 있음. 그런데 3만 원 이상 가구수가 구독 신문 수 3개인 가구수보다 많음. ① 소거.

ㄹ. 40대의 해당 비율은 [1,998 → 803]으로 관찰됨. 딱 40% 조금 넘는 수준인데, 20대가 [842 → 439]로 절반을 넘음.

[35번] ③

모니터는 30인치 이상 크기에 QHD 이상 해상도를 지원하는 제품을 선택
→ 을, 병, 무 소거

그래픽카드는 해당 모니터가 지원하는 가장 높은 해상도를 기준으로 그래픽카드 프레임속도 값이 모니터 주사율 값보다 큰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 갑정 모두 UHD 지원, 주사율이 60에도 못 미치는 다, 바 소거

모니터는 단가 대비 주사율이 더 큰 제품을 선택
→ 갑은 딱 1/6이고 정은 그보다 작으므로 갑 선택 확정. 이때, 갑 10개를 구입해 발생한 비용과 남은 예산액 필기. 갑은 3,600천 원, 남은 예산은 26,400천 원. (선지가 천 원 단위이므로 천 원으로 통일해야 편함)

그래픽카드는 메모리 용량이 더 큰 제품을 선택
→ 메모리 용량이 가장 큰 가와 라는 남은 예산으로 32개를 구매할 수 있는 단가가 아님. 남은 나와 마는 모두 단가가 괜찮고, 그중 메모리 용량이 더 큰 마를 선택.

3,600에 740 × 32를 더하는 상황인데 선지가 모두 정확한 값이니 뒷자리부터 맞춰감. 740 × 2를 하면 십의 자리가 8일 테니 ①, ② 소거. 740 × 2에서 백의 자리 숫자 4가 나올 테고, 740 × 30에서는 백의 자리 숫자 2가 나올 것임. 여기에 3,600의 6까지 더하면 백의 자리는 2가 되어야 함. ③이 정답.
※ 이 테크닉에 능숙하지 않으면 그냥 필산이라도 해서 740 × 32를 빨리 계산할 것. 괜히 머리 쓰다가 시간 더 감.

[36번] ①

발문에서 지시한 '선적 원유의 최종단가'는 정보1에서 나온 적용단가에 정보2의 품질계수를 곱해 나옴. <표>의 유럽부터 차례대로 계산.

갑: 선적일이 9월 18일이고 유럽임. 20일 지난 날은 10월 8일임(9월은 말일이 30일이므로, 말일로 인한 변수 신경 쓸 필요 없이 쉬운 계산 가능). 10월 8일부터 5일간 단가는 73, 72, 70, 70, 68임. 중앙값인 70을 기준으로 편차를 재면 + 3이고, 이를 변량 수인 5로 나눠 더한 70.6이 평균 = 적용단가임. 갑은 고품질이므로 여기에 × 1.1이 들어간다고까지 필기해 둠.

을: 선적일이 10월 7일이고 유럽임. 10월 27일부터 5일간 단가를 보면 72, 73, 73, 74, 75임. 갑과 같은 방식으로 평균을 재면 73.4가 나오는데 을은 저품질이라 이것이 곧 최종단가임. 갑보다 작으므로 소거.

병: 선적일이 9월 22일이고 미국임. 30일 지난 날인 10월 22일부터 3일간 66, 67, 68이니 평균은 67임. 고품질이더라도 갑에게 당연히 밀려 소거.

정: 선적일이 9월 4일이고 미국임. 10월 4일부터 3일간 76, 75, 74이니 평균은 75이고, 저품질이라 그대로 확정이므로 갑에게 밀려 소거.

무: 아시아이므로 10월의 현지단가 평균을 봐야 하는데, 무작정 다 더하는 건 바보임. 갑과의 비교만 하면 되고 똑같이 고품질이므로, 무의 평균이 70.6보다 작은지 큰지의 싸움임. 70을 가평균으로 두고 편차의 합을 따져봄. 70보다 큰 것들로부터 +62가 나오고, 70보다 작은 것들로부터도 -62가 나옴. 평균이 정확히 70이므로 갑이 정답.

[37번] ②

ㄱ. <표 1>을 보면 국회의원의 전체 농지 수가 7개인데, <표 2>에 7개가 모두 있으며 그중 농지만 보유한 국회의원은 없음. ④, ⑤ 소거.

ㄱ을 풀고 나서 ㄴ을 볼 때, [ㄴ이 귀찮아 보임 + 인원수와 그 인원수가 가진 부동산 수가 1개 ~ 4개로 분포되어 있음]으로부터 우기기 아이디어 적용할 문제라고 인식 → 전형적인 우기기 선지인 ㄷ으로 이동해 우선 처리.

ㄷ. 국회의원은 24명이고,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총수는 모두 더해 47개임. 1명이 1개 보유했을 때보다 +23개인 상황. <표 2>에 드러난 +값을 구해봄. 2개 보유한 사람은 +1, 3개는 +2, 4개는 +3. 모두 계산하면 표에 드러난 부분만으로도 +23이 모두 채워짐. 따라서 표에서 잘려나간 의원들은 전부 1개만 보유한 의원임. <표 2>에 드러난 알파벳이 17번째인 Q까지이고 이중 1개만 보유한 사람이 2명 있으므로, 나머지 7명까지 더하면 9명이 맞음.

[38번] ⑤

① 2020년의 전체 합격률은 83.7%임. 드러난 두 해는 20년보다 작고, 빈칸인 2023년의 전체 합격률은 남성과 여성의 가중평균으로 나올 텐데 각각 81%와 78.2%라서 83.7%보다 커질 수가 없음.

② 2023년에 합격자수가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합격률은 올라갔음. 이러려면 응시자수가 합격자수보다 더 큰 비율로 감소했어야 하므로 22년 응시자가 더 많음.

③ 빈칸 때문에 귀찮을 테니 일단 스킵.

④ 죄다 빈칸이라 귀찮아 보여 일단 스킵.

⑤ 2023년 합격자수를 응시자수 × 합격률로 구하는 건 미친 짓이니 우회로를 찾기로 함. 응시자수의 변화율과 합격률의 변화율을 이용하면 비교 가능. 21→22 구간에 응시자수는 [33,8 → 33,9]로 0.3%가량 증가했는데, 합격률은 [806 → 782]로 3% 살짝 안되게 감소함. 3%보다 작은 감소율에 미미한 증가율까지 있으니, 합격자수의 감소율은 3%가 안될 것임.

[39번] ②

ㄱ. 인구 백만 인당(백분율이라고 생각한다)이 주어져 있으니, 총선로길이를 이 비율로 나누면 인구를 알 수 있음. 총선로길이가 큰 순서대로 을, 병, 갑, 정을 보면 나눠 나오는 값도 순서가 맞음. 을은 천 배가 넘고, 병은 백 배가 넘고, 갑은 60~70배쯤 되며, 정은 그만큼은 안됨. ③, ④ 소거.

ㄴ. 두 지표 모두 비율을 따져야 해서 귀찮으므로 일단 뒷선지를 봄.

ㄷ. 볼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 이걸 풀기로 함. 갑의 해당 비율은 [90 → 19,000]이고 을은 [2,294 → 1,980,061]로 관찰됨. 둘 다 세 자리 차이이므로 90 → 190과 23 → 198로 줄여 봐도 무방함. 갑은 2배 조금 넘는데 을은 8배를 넘으므로 3배 이상이 맞음. ① 소거.

ㄹ. 을의 해당 비율은 [63,700 → 723,006]이고 정은 [3,900 → 40,343]으로 관찰됨. 정은 10배 하고 거의 꽉 차지만 을은 10배 하고도 꽤 남음. 을이 더 높음.

[40번] ⑤

ㄱ. 지급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1분위 ~ 3분위까지만 적용됨. 1분위 세대에 먼저 기준2 ~ 3을 적용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따져 보기로 함.

1인 세대 40% → 그대로 2천 명 → 곱하기 0.1백만 원 → 0.2십억 원(2억)
※ 천 × 백만 = 십억을 뽑아내는 단위환산은 암기 · 체화되었어야 함.
이해했고,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세대도 따진다면
2인 세대 20% → 2천 명 → 똑같이 2억
3인 세대 20% → 3천 명 → 여긴 3억
4인 이상 세대 20% → 기준 3 때문에 어차피 40으로 묶이니 4억
1분위 세대 총액 11억.
2분위 세대는 1분위 세대와 구성이 똑같으니 여기도 11억.
3분위 세대는 1인이 줄고 2인이 늘어난 구성이므로, 11억보다 클 것임.
따라서 1 ~ 3분위 총액은 33억 원 이상임. ②, ④ 소거.
※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 뽑은 값들(2, 2, 3, 4)은 표에 필기해야 함.

ㄴ. 선지의 변경 사항을 적용하면 ㄱ에서 구해둔 금액에서 3분위의 1인 세대가 빠져나가고, 2인 이상인 세대는 현행 기준과 같음. ㄱ에서 다 계산하지 않은 3분위 세대 부분을 마무리하면 풀릴 것임.

1인 세대 35% → 1.75천 명 → 1.75억
2인 세대 25% → 2.5천 명 → 2.5억
나머지는 똑같으므로, 1인에서 0.25 빠지고 2인에서 0.5 커져 11.25억.
즉, 현행 기준에서 지급 총액은 33.25억 원임. 여기에서 3분위 1인 세대의 1.75억을 빼면 정확히 31.5억 원이 나옴. ① 소거.

ㄷ. <표 1>에 총세대원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4인 이상 세대의 세대원수를 구할 수 있음. 1인 ~ 3인 세대원수를 빼면 됨. 이때 표에 1 ~ 3분위의 1인 ~ 3인 세대 각각의 세대원수(=지급액수)가 필기되어 있어야 함(ㄱ ~ ㄴ에서 했어야 할 작업).

1분위는 총 세대원수에서 7천 명을 빼면 4.2천 명이 남음. 2분위도 같음. 3분위 역시 총 세대원수에서 7.25천 명을 빼서 4.2천 명이 남음.

숫자가 전부 4.2천으로 딱 맞으므로 평균 계산은 필요 없어짐. 단위만 체크하면 됨. 여기에서 '천' 단위로 구한 세대원수의 단위를 '억'으로 바꾸면 지급액수였음. '천'에서 '십억'으로 가는 게 백만 배이므로, '천'에서 '억'으로 가는 건 십만 배임. 4.2의 십만 배는 42만이 맞음.

[상황판단]

[1번] ⑤

① (3항) 공고 주체는 시 · 도지사가 아님.
② (2항 3호)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단서 상황에 해당함.
③ (3항) 통보 주체는 국가교통위원회가 아님.
④ (2항) 확정의 주체는 국가교통위원회가 아님.

[2번] ②

① (4항)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② (2항) 목욕실은 원칙상 설치 · 운영이 안 되지만, 교도소는 예외로 되어 있음.

[3번] ②

① (○○조 2항) 외국인 성명은 로마자와 한글 병기가 원칙이고,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음.
② (□□조 4항) 성과 이름을 띄어 쓰며 이름 사이도 띄어 쓸 수 있으므로, 선지의 경우 성과 이름 사이에 한 번, 이름에서의 한 번을 합쳐 2번을 띄어쓰기할 수 있을 것임. (Brown Koko Katherine)

[4번] ⑤

① (□□조 2항) 책임'한도'가 2천억 원으로 정해져 있음. 반드시 2천억 원인 게 아닐 것.
② (□□조 1항)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③ (□□조 2항) '한도'가 2천억 원인데 어떻게 2천억 원 이상이 되냐?
④ (○○조, □□조 1항) 우주손해에 제3자의 건강 손상도 포함되어 있음.

[5번] ⑤

ㄱ. (□□조 2항 1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라면 고등학교 재학생이므로 응시 불가능.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 ①, ②, ④ 소거.
ㄷ. (□□조 1항 3호) 응시자격에 언급된 경우에 정확히 일치함. 2024년 2회차는 2024년 12월에 시행되므로 06년 7월생은 이때 18세 이상임.

[6번] ②

ㄱ. (1문단) 장이 사용되기 전에 쓰던 게 수궤임. ①, ③ 소거.
ㄷ. (2문단) 머릿장은 사랑방에서 사용되기도 했음. ⑤ 소거.
ㄹ. (3문단) 촉짜임기법이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얘기만 있지, 선지와 같은 언급은 없음.

[7번] ②

비로 표현된 것들은 모두 더해서 에스프레소에 바로 곱해줘야 함.
甲: 카페라떼의 양은 에스프레소의 7배이고, 30ml짜리 싱귤러를 선택했으므로 200ml를 초과함.
乙: 아인슈패너는 30ml짜리 싱귤러의 5배이므로 중간 컵 용량 범위에 있음. 콘파냐 역시 60ml짜리 도피오의 2.5배이므로 중간 컵에 해당함. 여기서 2개.
丙: 쓴맛이 강한 에스프레소는 40ml짜리 룽고임.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의 9배 양이므로 중간 컵 범위를 초과함.
丁: 농도가 진한 에스프레소는 20ml짜리 리스트레또임. 중간 컵 용량이 아님.

[8번] ⑤

(가) 빈칸이 mmHg 단위이므로 이에 맞춤. 1기압이 760 mmHg이고, 수은 기압계의 높이가 1 mm일 때가 1 mmHg이므로 1m면 1,000 mmHg임. 240 차이. (짬바가 있다면 차이가 0일 수 없기 때문에 ①, ②를 소거해야)
(나) 이번에도 mmHg 단위임. 해수면에서의 대기압이 760(1기압)이고, 거기서 10 m씩 네 번 더해야 하니 총 압력은 760 × 5가 됨.

[9번] ③

1) 결혼할 때 甲은 51세로 보임.
2) 다음 해 아들을 낳았으므로 이때 甲은 50세로 보임.
3) 아들은 0세에서, 甲은 50세에서 1년씩 가까워지므로 甲과 아들이 동일한 나이로 보이게 되는 연도는 甲이 25세로 보이는 날임. 甲이 0세 때 75세로 보였으므로, 이때 甲의 나이는 50세.

[10번] ④

1문단에서의 합계조건 24개를 포함해, 2문단의 첫 조건까지 표로 옮기며 문제 풀이를 시작함.

ㄱ	ㅇ	ㅂ	ㅈ	ㅁ	
a		5a			24

두 번째 조건은 당장 뭘 하기 귀찮으므로 마지막 조건으로 넘어가서 을, 무가 홀수라는 점을 필기함.

ㄱ	ㅇ	ㅂ	ㅈ	ㅁ	
a		5a			24
	ㅎ			ㅎ	

총합이 짝수이고 을, 무가 홀수, 갑, 병의 홀짝은 같으므로 아까 안 썼던 조건2까지 고려하면 대입으로 전환할 타이밍인 듯함.

갑, 병에게 가능한 순서쌍 (1, 5) (2, 10)…을 차례로 대입해 보기로 함.

(갑, 병) = (1, 5)인 경우
조건2를 적용하면 정이 6이거나 9인데, 갑을병무가 다 홀수면 정이 짝수여야 총합도 짝이 나옴. 따라서 정은 6 확정. 이때 총합까지 남은 값이 12이고, 을과 무가 아직 안 쓴 홀수로 12를 만들려면 3과 9밖에는 방법이 없음. 을이 무보다 적으므로 무가 9임.

ㄱ	ㅇ	ㅂ	ㅈ	ㅁ	
a		5a			24
	ㅎ		ㅉ	ㅎ	
1	3	5	6	9	

가능한 세계 하나가 확인되었으므로 이게 답일 수밖에 없음. 갑무 차이는 8.

[11번] ①

ㄱ. 甲이 A를 안 잡았으면 최대 점수가 60점임. 이런데도 甲이 1등이려면 乙이 50점이나 40점을 받아야 함. 乙이 50점을 받았다고 하면, 丙이 5마리를 잡았고 서로 점수 합이 다르다는 조건 때문에 甲을 추월하게 됨. 乙이 40점을 받았다고 하면 丙이 乙보다 높은 순위가 되어 버림. 모순이 발생하므로 甲이 A를 잡지 않은 경우는 불가능함. ②, ④ 소거.
ㄴ. A와 C 2마리씩으로 80점을 만들 수도 있음. ⑤ 소거.
ㄷ. 丙이 C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최소 점수가 100점인데, 그러면서 꼴찌라는 건 말도 안 됨.

[12번] ③

이미 포함된 BA13과 CB11에 동그라미 쳐 두고 시작.

ㄱ. A는 이미 1개 포함되어 있으므로, 남은 것들 중 A가 있는 건 포함하지 않았다는 뜻임. 그럼 AD10과 DA14를 제외하고 4개를 모두 선택해야 6개를 맞출 수 있는데, DA14와 DD12에 D가 총 3개 있음. ②, ④ 소거.

ㄴ. '전자계산서 발급 조회'를 처리하면서도 B를 가장 많이 쓸 수 있는지 따져보면 됨. B가 들어 있는 BC03, BE02를 모두 포함한다면 B가 4개로 가장 많음. ⑤ 소거.

ㄷ. '신고자내역 조회'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남은 것들의 일의 자리 숫자를 전부 합쳐도 21이 안됨.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13번] ③

월화수목금을 제목행에 넣어 표를 세팅하고 <상황>의 페이지수를 필기해 나감.

상황1: 1행-화요일에 '1~'를 필기함.

상황2: 2행-화요일에 '~17'을 필기함.

상황3: 2행-목요일에 '~23'을 필기함. 수, 목요일에 추가로 읽는 쪽수는 6쪽임.

상황4: 3행-화요일에 '~31'을 필기함. 이제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추가로 읽는 쪽수가 14쪽임을 알게 되었음.

최종 추론: 마지막 쪽이 74쪽이므로 31쪽에서 14씩 더해 최대한 가까이 가면 42를 더해 73쪽까지 갈 수 있음. 73쪽까지 읽은 날이 화요일이므로 그다음 날인 수요일에 바로 마지막 쪽을 읽게 될 것임.

[14번] ④

줄글 부분을 보고 다음과 같이 표를 세팅한 뒤 대화를 보고 추론을 시작함.

	작	올
S		
A		
A		
B		
B		
B		

甲: 작년보다 등급이 올랐으니 S일 수 없음(필기).

乙: 갑과 마찬가지.

丙: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으므로 보류.

丁: 정이 위의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갑을병을 죄다 확정했으므로 조금이라도 정보가 있는 갑, 을을 붙잡고 먼저 생각해 봄. 갑을의 진술에 부합하는 경우의 수가 A→S, B→S, B→A 3가지일 텐데, 정의 등급 때문에 이게 1가지로 줄어들어야 정과 같은 진술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정은 올해 S일 수밖에 없음. 다른 등급으로는 갑을의 가짓수를 1개로 좁힐 수 없음. 정이 올해 S이면 갑을은 반드시 B→A여야 함. 이러면 작년과 올해의 등급이 똑같을 수 있는 자리가 B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병이 B라는 것까지 확정됨.

	작	올
S		ㅈ
A		갑
A		ㅇ
B	갑	
B	ㅇ	
B	ㅂ	ㅂ

戊: 무가 위 표의 내용을 모두 아는 상태임. 무, 기가 올해 B라는 건 이미 확정이고, 작년에 무가 S였어야 남은 두 칸을 모두 A로 만들어 작년까지도 전부 확정시킬 수 있음. 다 확정됐으니 풀이 종료. 기는 작년에 A, 올해 B임.

[15번] ①

1) 화폐 단위상 850머니를 결제하고 받은 거스름돈은 150머니일 수밖에 없고, 이는 100머니와 50머니 동전 각각 1개씩일 것임. 이때 불편지수가 9가 될 수 있는 조합은 (지폐 2, 동전 3)과 (지폐 1, 동전 6), (지폐 0, 동전 9)가 있음.
2) 다음 꽃집에서 1,000머니를 결제할 수 있어야 하니 방금의 순서쌍 중 (0, 9)는 불가능해졌음. 1,000머니를 결제한다면 지폐 1개를 내거나 동전을 10개 내야 하는데, 동전 10개는 없으니 지폐 1개를 냈다는 뜻임. 그러고 남은 동전이 3개이므로 문구점에서 거스름돈을 받은 뒤의 순서쌍은 (2, 3)이었음이 확정됨.
3) 문구점에서 거스름돈을 받아서 동전이 3개가 되었다면, 받기 전 동전은 1개임.

[16번] ④

1) 바이올린 협주 말고 다른 공연에 가므로 바이올린 협주를 먼저 소거.
2) 시험이 10월 9일에 있으므로 그 전에 있는 뮤지컬을 소거.
3) B시에서 공연하는 오케스트라를 소거.
4) 남은 두 공연 중 피아노 협주에 학생할인이 적용되면 96,000원으로 가장 저렴해지므로 이것을 선택.

[17번] ③

제외 조건에 따라 민원만족도 80 미만인 戊와 민원처리 건수 40건 미만인 丁을 지우고 시작. 甲 ~ 丙의 민원처리 점수를 8:2 가중평균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甲: 차이 35의 20%를 85에서 빼면 78점.

乙: 차이 40의 20%를 80에서 빼면 72점.

丙: 차이 45의 20%를 85에서 빼면 76점.

여기에 가점·감점을 모두 적용하면 甲은 74, 乙은 75, 丙은 76이 됨. 丙 선정.

[18번] ②

1) 증액요청을 하지 않은 C를 지움.
2) 예외 조건에 따라 보조금 미집행액이 있는 E가 1순위.
3) 남은 A, B, D의 총사업비 대비 보조금 총액 비율을 보면 A는 80%, B와 D는 90%임.
4) B와 D 중 보조금 총액이 큰 D가 2순위이므로, B가 세 번째로 정산할 사업.

[19번] ②

ㄱ. (1문단) 위도가 낮을수록 태양광 발전 효율이 향상된다. ①, ③ 소거.

ㄷ. (1문단) 태양광 패널과 태양광선의 각도가 90도일 때 가장 효율이 높음. 선지의 정보만으로는 태양광선과의 각도가 90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음. 태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20번] ③

마지막 문단이 계산 문제 근거 문단임.

(가) 1 MW 발전소에서 하루 4시간씩 30일이면 총 120 MW = 120,000 kW임. 가구당 250이니, 480을 곱해야 함. (정확한 계산 아니어도 ①, ②, ⑤ 소거 가능)

(나) 1 MW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연간 500톤이고 나무 한 그루의 감축 효과가 연간 2.5 kg이므로, 단위를 맞추지 않더라도 남은 선지 중 들어가야 할 숫자는 4가 아니라 2임을 알 수 있음.

[21번] ③

① (3항) 수입국의 동의도 받아야 함(상식적으로 이게 되겠냐?).

② (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함.

③ (4항) 기간을 정해 한꺼번에 허가하는 데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는 조건도 있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한꺼번에 허가할 수 없을 것임.

[22번] ⑤

① (3조) 국무총리 표창장은 나라문장 사용 가능 대상에 없음.
② (2조 3항) 철인으로 사용할 때는 색을 넣지 않음.
③ (1조 혹은 3조) 나라문장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쓰이는 것이지 외국으로부터 수신하는 문서에 쓰이는 게 아님. ~~우리나라가 쓴 문서가 아닌데 왜 우리 나라문장을 찍어~~
④ (2조 2항) '대한민국'은 한글로 표기함. 영어로 쓴다는 예외 조항은 없음.

[23번] ①

① (1조 1항, 3항)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납본 대상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체 없이 납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음.

[24번] ①

ㄱ. 철거명령을 받은 시점이 2024년 과세기준일보다 뒤이므로 의미가 없음. 2024년엔 그대로 재산세 부과 대상임. ③, ⑤ 소거.
ㄷ. (2조 2항 3호) 24년 4월 건축된 임시건축물이라면, 24년 과세기준일이 건축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았음. 비과세 대상임.

[25번] ⑤

① 상가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임대차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②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건물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③ 1항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④ 월세 × 100 = 2억 원까지 합하면 총 6억 원으로 1항의 보증금액을 초과함.

[26번] ②

① (2문단) 흑탄은 600 ~ 700도에서, 백탄은 800 ~ 1,300도에서 구움.
② (3문단) 문단 통째로 연료 이외의 용도로 활용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27번] ①

(가) 빈칸 문장에서 물 잔량이 플루이드온스(이하 fl oz) 단위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춰 단위환산함. 처음 甲의 1갤런 = 128 fl oz. 5파인트 = 80 fl oz. 따라서 을에게 48 fl oz가 옮겨졌고, 빈칸을 소비하기 직전 甲의 물은 80 fl oz 남았음. 거기서 40 fl oz를 소비해서 40 fl oz을 남긴 것이고, 1컵이 8 fl oz이므로 (가)는 5임.

(나) 乙이 받은 물은 48 fl oz이고, 乙이 소비한 1쿼트는 1/4갤런임. 1갤런이 128 fl oz이므로 1/4갤런은 32 fl oz임. 이만큼을 소비했으니 남은 물은 16 fl oz이고, 이를 테이블스푼으로 환산하는 작업만 남음. 16 fl oz = 2컵 = 96 티스푼 = 32테이블스푼으로 환산됨.
※ 마지막 환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플루이드온스와 테이블스푼을 환산해주는 연쇄를 먼저 관찰해 두고 계산에 들어가야 중간에 꼬이는 일이 방지됨.

[28번] ④

마지막 90일은 먹이를 구할 수 없으므로, 275일 동안 비축한 먹이로 마지막 90일을 보냈다는 뜻임. 그러면서 모자라거나 남는 먹이 없이 겨울을 보냈으니 275일째의 비축을 끝낸 시점에 비축된 먹이는 540 g이어야 함.

홍수가 난 날을 방정식을 세워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수리퀴즈를 그렇게 풀고 싶지는 않음. 사라진 먹이가 분모가 3인 분수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아마 정답은 3의 배수인 ①이나 ④ 중 하나일 테고, ①부터 대입해 보기로 함.
※ 이 배수 관찰 테크닉은 '찍기'에 매우 유용함.

180일째 날에 홍수가 났다고 가정하면, 180일째까지의 비축량 720 g 중 1/3인 240 g만 남고, 남은 95일간 380 g이 추가로 비축될 것임. 540 g이 아니므로 답이 아님.

210일째 날에 홍수가 났다고 가정하면, 210일째까지의 비축량 840 g 중 1/3인 280 g만 남고, 남은 65일간 260 g이 추가로 비축될 것임. 540 g 딱 맞으므로 이게 정답.

[29번] ④

초원에 간 로봇이 심은 총 나무 수는 142,857 × 7 = 999,999임. (1/7 분수를 제대로 암기한 수험생은 반가웠을 것) 즉, 사막에 간 로봇이 심은 총 나무 수는 숫자 9로만 이루어짐.

37을 곱해서 9로만 이루어진 수를 만들어야 함. 그냥 곱해 보자.
1) 37에 2를 곱하면 74, 3을 곱하면 111. 어라? 다 똑같은 수가 나왔다.
2) 그럼 거기다 또 9 곱하면 999 나오겠네?
3) 3 × 9 = 27이 정답.

※ 복면산 테마를 연습해본 사람이라면 37 × 3 = 111이 AB × A = CCC 꼴로 자주 나와서 머릿속에 있을 법하고, 나도 이를 활용해 빠르게 풀었다. 공교롭게도 24년_5급_28번 프리미엄 해설에서도 다뤘던 복면산 곱셈이다.

[30번] ①

제목행에 ABC, 제목열에 남/여와 숙/비를 나눠 표를 세팅하고 모든 비를 그대로 옮겨 넣음. 그다음 인원 이동까지 다 필기함.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됨.

	A		B		C	
남	1	-1 +1	2	-1	1	+1
여	1		1	+1	2	-1
숙	2	-1	1		1	+1
비	1	+1	1	-1 +1	2	-1

2:1이던 비율들이 2 쪽에서 한 명 빠지고 1 쪽에 한 명 늘어남으로써 1:1이 되었다고 함. 이럴 수 있으려면 2:1이 나타내던 실수치가 어때야 하는지 맞춰야 하는데, 바로 감이 안 오면 그냥 대입해 봄.

실제로도 2와 1이었으면 하나 빠지고 하나 더해졌을 때 1과 2로 뒤집힘.
4와 2였다면 하나 빠지고 하나 더해졌을 때 3과 3으로 1:1이 됨. 찾았다!

A, B, C가 전부 이에 해당하니 6명 × 3 = 18명임.

[31번] ④

ㄱ. 8일 내내 잘못 복용(A 2개 먹고 B 2개 먹고…)했어도 각각 2정씩 남길 수 있음. ①, ③, ⑤ 소거.
ㄷ. A만 4정 남았다면 8일간 A 6정과 B 10정을 먹은 것임. 이때 약을 제대로 복용한 날이 5일이라고 선지대로 가정하면, 남은 3일 동안 A 1정과 B 5정을 먹게 됨. 그런데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고서는 홀수 개의 약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정은 말이 안 됨.

※ 반드시 '홀짝' 테마를 떠올리지 않아도 ㄷ 해결에 문제가 없음.

[32번] ④

ㄱ. a는 주어진 단어 중 5개에 들어가 있으므로 반드시 제대로 수신된 알파벳이어야 함. ①, ③ ⑤ 소거.

ㄷ. o가 들어 있는 단어는 orange뿐이므로 3개의 단어가 더 필요함. 우선, p가 잘못 수신되었다고 하면 남은 단어들 중 apple, grape, peach까지 정확히 3개가 잘못 수신되므로 조건에 부합함. 이제 p 말고 다른 알파벳으로는 불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단순 노가다. 이것만 풀면 끝나는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펜으로 지워가며 풀어야 함.

a는 ㄱ에서 확인했으니 제거.

p도 방금 확인했으니 제거.

l은 apple에만 있으니 제거.

e는 banana 빼고 전부 들어가 있어서 5개가 되니 제거.

b, n는 banana에만 있으니 제거.

c, h는 cherry와 peach 둘뿐이니 제거.

여기까지 제거하면 단어가 3개 이상 남지 않았으므로 끝.

※ 위 과정은 당연히 극단적이고, 실제로는 진행 과정 중에 얼추 '3개 걸리는 거 없겠는데?'가 보일 것임. 사람마다 보이는 시점은 다를 테고.

[33번] ③

甲: A + B ≤ 7이고 A + B + C ≤ 8임을 알 수 있음.

乙: B ≤ 2이고 B + E ≤ 3임을 알 수 있음.

丙: D + E ≤ 8임을 알 수 있음.

이 중 가장 유용한 정보는 미지수가 적은 을의 정보임. B와 E가 1과 2 중 하나일 테니(자동으로, A, C, D는 3, 4, 5 중 하나) 이를 다른 부등식에 대입해 따져 볼 수 있음. 발문에서 물은 A와 C가 마침 B와 함께 甲의 부등식에 있으므로 그걸 이용함.

B가 1이라고 가정하면 → A + B + C ≤ 8을 만족하는 방법이 A + C = 7뿐임.
B가 2라고 가정하면 → A + B + C ≤ 8을 만족하는 방법이 없음.

따라서 A와 C의 합은 7임.

[34번] ⑤

조건 박스에 주어진 대로 다음과 같이 표를 세팅한 뒤 시작함.

		ㄱ	ㅇ	ㅂ	ㅈ	ㅁ
ㅉ	1					
ㅎ	2					
~5	3					
6~	4					

사전 정리: 1, 2호기가 홀짝으로 이항대립, 3, 4호기가 5층 이하와 6층 이상으로 이항대립임. 따라서 각 세트에서 어느 한쪽이 O나 X가 되면 반대쪽이 X나 O로 확정됨.

甲: 4호기에 O. 乙도 4호기에 O. 둘 다 자연히 3호기는 X가 됨.

乙: 1호기에 O. 2호기는 자연히 X가 됨.

丙: 乙과 마주칠 일이 없으려면 홀짝도 다르고 층수 범위도 달라야 함. 1~4호기 순서대로 XOOX. 戊를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봤다면 홀짝이나 층수 범위 중 하나는 일치한다는 건데, 당장 처리가 어려우니 戊를 슬쩍 보러 감.

戊: 3층 이하에 근무하니 3호기에 O, 4호기에 X. 이러면 丙이 戊를 자주 본 것은 설명됨.

丁: 戊와 홀짝도 다르고 층수 범위도 다르니 3호기에 X, 4호기에 O. 甲, 乙, 丙과는 홀짝과 층수 범위 중 하나는 일치해야 하는데, 甲과 乙은 층수 범위가 일치하지만 丙과는 그렇지 않음. 따라서 홀짝이 丙과 같아야 함. 1호기에 X, 2호기에 O. 다시 戊로 돌아와서 홀짝이 불일치하게 만들어야 함. 戊는 1호기에 O, 2호기에 X. 戊가 3층 이하의 짝수이므로 2층으로 확정됨.

		ㄱ	ㅇ	ㅂ	ㅈ	ㅁ
ㅉ	1		O	X	X	O
ㅎ	2		X	O	O	X
~5	3	X	X	O	X	O
6~	4	O	O	X	O	X

[35번] ③

1문단에 주어진 조건을 먼저 표에 기록해 둠. 싱긋과 찡긋에 각각 ㅉ, ㅎ을 표기하고 웃는다, 운다에 각각 3과 ~3을 표기함. 만약 어느 쪽이 탈락자이고 생존자인지 바로바로 인식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표를 새로 그리는 게 나을지 모름. 여기서는 설명 편의상 표를 새로 그림.

	1	2	3	4	5
탈락자	ㅉ	ㅎ	ㅉ	ㅉ	ㅉ
생존자	3	3	~3	~3	~3

※ 총 참여자 수, 게임 종료 조건 등은 까먹기 매우 쉬운 위치에 있는 중요한 조건이므로 표 근처에 따로 자신이 알아볼 수 있게 옮겨 적어야 함.

2문단에 주어진 정보를 표에 추가로 기록함. 1, 2, 4, 5회차의 탈락자 수가 1명~9명으로 결정되었는데 이건 각자의 취향대로 필기하면 될 것.

	1	2	3	4	5
탈락자	ㅉ	ㅎ	ㅉ 14	ㅉ	ㅉ
생존자	3	3	~3	~3	~3

1, 2, 4, 5에 쓸 수 있는 탈락자 수가 1부터 9까지의 숫자뿐인데 짝수가 3개나 들어가야 함. 1부터 9까지의 짝수는 2, 4, 6, 8로 4개이니 이걸 이용해서 대입해보기 편할 것임. 최초에 49명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1회차부터 대입해 봄.

1회차에 탈락하고 나서 남은 인원이 3의 배수여야 함. 49에서 빼서 3의 배수를 만들려면 2, 4, 6, 8 중 가능한 게 4밖에 없음. 다른 수는 빼면 3의 배수가 안 나옴. 1회차 탈락자 수 4명, 생존 인원 45명이 확정됨.

	1	2	3	4	5
탈락자	ㅉ 4	ㅎ	ㅉ 14	ㅉ	ㅉ
생존자	3 45	3	~3	~3	~3

2회차에도 탈락하고 나서 3의 배수가 남아야 함. 이번에는 홀수가 들어가는데, 생존자가 이미 3의 배수이므로, 똑같이 3의 배수를 빼야 3의 배수가 남을 것임. 따라서 가능한 수는 3 아니면 9임.

3이라고 가정하면 → 42명이 남고, 3회차에 14명이 탈락해 28명이 남음. 3의 배수가 아니므로 여기까지만 보면 모순은 없음.

9라고 가정하면 → 36명이 남고, 3회차에 14명이 탈락해 22명이 남음. 어라? 그럼 3회차 끝나고 게임이 종료되었어야 함. 모순이 생기므로 2회차 탈락자는 3명으로 확정됨.

※ 여기서 게임 종료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앞서 언급했듯 놓치기 쉬운 조건 옮겨놓는 습관을 들일 것.

※ 시간이 부족해서 찍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때 선지에서 ②, ⑤를 소거해야 함. ②는 3에 4를 더해야 나오는데 4는 이미 썼고, ⑤는 10을 더해야 해서 안 됨. 시간이 충분하다면 굳이 선지 소거한다고 흐름 깨지 말고 쭉 이어갈 것.

2회차까지 확정하고 나면 표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어야 함.

	1	2	3	4	5
탈락자	ㅉ 4	ㅎ 3	ㅉ 14	ㅉ	ㅉ
생존자	3 45	3 42	~3 28	~3	~3

남은 짝수가 8, 6, 2인데, 4회차에서 8명이나 6명을 탈락시키면 게임이 종료되어 버리므로 4회차 탈락자는 2명이고 생존자는 26명 남음.

남은 짝수가 8과 6인데, 26에서 8을 빼면 18로 3의 배수가 되어 버리니 5회차 탈락자는 6명임. 정답은 3 + 6 = 9명.

[36번] ①

1) 제외 조건을 찾아, 체력소모도 + 위험도가 7을 초과하는 B를 먼저 소거.
2) 나머지 넷의 최종점수를 식대로 계산하면 A가 7.5, C는 딱 봐도 너무 작아 무시하고, D는 7.5, E는 6이 나옴.
3) A와 D에 동점자 규정을 적용하면 접근성은 동점이고 경관에서 A가 앞서므로 A를 선택.

[37번] ③

1) 제외 조건을 찾아, 데이터 전송 속도가 200 미만인 A를 먼저 소거.
2) 데이터 400 GB 사용을 위해 B는 60천 원을, C는 30천 원을 추가 지불.
3) OTT 구독 시 E를 제외하고 전부 20천 원을 추가 지불.

필기해둔 값을 기본요금에 모두 더하면 B, D, E는 모두 140이지만 C는 130임.

[38번] ①

1) 제외 조건을 찾아, 실무평가 점수 중 60점 이하가 있는 C를 먼저 소거.
2) 남은 사람들의 최저점 제외 합산을 비교하면 순서대로 155, 150, 165, 170이므로 B를 제외한 3명이 최종 후보가 됨.
3) A, D, E의 실무평가 점수 합계와 면접평가 점수 합계를 구해 더해야 함(최종 선발에서는 최저점 제외가 아님에 유의). 최저점 제외 실무평가 점수를 이미 써 두었으니, 면접평가 합산 점수에 그걸 더하고 표에서 최저점만 찾아 추가로 더하면 됨. A부터 차례대로 470, 470, 465점이 나옴. 동점자 규정을 적용하면 A의 면접 점수가 D보다 높으므로 A가 최종 합격.

[39번] ①

지문이 머릿속에 형상화하고 기억하기 어려운 성격의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웬만한 수험생은 어설프게 눈으로 + 머리로 처리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필요한 선에서 그려 가며 문제를 풀 것.

ㄱ: 원을 따라 '기' 4개가 있고 '입'이 그 사이 중앙에 들어가 있다면, '기'도 '입'의 사이 중앙에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됨(머리로 안 되면 빨리 그림 그릴 것). ③, ⑤ 소거.

ㄴ: (1문단) 지문에서 그대로 확인 가능. 둘 다 '교'에 해당함. ② 소거.

ㄷ: (1문단) 처음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주위를 도는 공전에 따라 정했다고 했으니 음력 바탕이 아님을 알 수 있음. 이걸 놓치더라도, 농경사회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내용도 없음.

[40번] ④

'우수'는 봄의 첫 번째 '교'임. 1문단 내용을 보면 기, 입, 교, 극이 각각 계절별로 1개, 1개, 2개, 2개 배치되어(순서는 입-교교-기-극극) 규칙적으로 순환하고 있음. 따라서 봄의 첫 번째 '교'에서 12개의 절기가 지나가면 (원에서) 점대칭 위치에 가을의 첫 번째 '교'가 있을 것임. 가을의 첫 번째 '교'는 처서.

※ 대칭을 바로 떠올리지 못하면 당연히 그림을 그려야 하고, 그런다고 해서 크게 나쁜 풀이도 아님.